



## 원가 이하 전기요금 제도는 사실상 에너지 ‘부자감세’ 전기다소비자 ‘많이 쓸수록 이득’, 한전은 ‘많이 팔수록 손해’

- 원가 이하 전기요금은 전기 다소비자에게 보조금 주는 셈
-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 상위 20개 고객, '22년 1~9월 기간 약 3조 8,068억 원 덜 내고 그대로 한전적자로 쌓인 셈
- 윤석열 정부, 시장기능 정상화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엔 관심 없고 땀질식 미봉책에만 급급
-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과 함께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 마련해야

현재 전기요금체계가 심하게 왜곡되어 있어, 한전은 많이 팔수록 손해를 보고, 다소비자는 많이 쓸수록 이득을 보는 기이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에 제출한 ‘용도별 전력사용량 상위 20위 고객 판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용, 일반용(상업용)으로 계약한 고객 중 '21년 각 용도별 사용량 상위 20개 고객이 '22년 1~9월 동안 사용한 전력량은 총 49,639 기가와트시(GWh), 납부한 전기요금은 5조 290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평균 SMP(전력도매시장가격)는 키로와트시당 178원, 평균 판매단가는 116원이다. 한전은 도매전기요금 원가를 반영하지 않아 1킬로와트시당 62원의 손해를 보면서 전기를 판매한 것이다.

한전이 전력도매시장가격을 반영해 전기를 판매했다면 약 8조 8,358억 원의 매출을 올렸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57% 수준인 5조 290억 원만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43%에 해당하는 약 3조 8,068억 원은 고스란히 적자로 쌓이게 됐다.

월가가 반영되지 않은 전기요금으로 이득을 본 것은 전기를 적게 쓰는 일반 가정이 아니라 전기를 많이 쓰는 소비자들로,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다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는 셈이고, 이들은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산업용으로 전기를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위 20곳 중 전자 관련 대기업인 A기업은 사업장 별로 계약이 분리되어 각각 1위, 2위, 7위, 17위에 랭크되었다. A기업의 사업장 4곳 전력소비량을 합산하면 8월 한 달간 1,750기가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하고, 2,076억 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8월 평균 SMP인 198원을 적용했다면 3,465억 원을 납부해야 했을 것이나, 월가 이하 전기요금으로 인해 해당 기업이 받는 혜택(보조금)은 8월 한 달 1,389억 원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일반용(상업용)으로 전기를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위 20곳 중, 위의 A기업은 1위와 5위에 랭크되었다. A기업의 사옥 두 곳에서 사용한 8월 한 달간 사용한 전력량은 101기가와트시, 납부한 전기요금은 125억 원이다. 8월 평균 SMP인 198원을 적용했다면 200억을 납부해야 했을 것이나, 월가 이하 전기요금으로 인해 해당 기업이 받는 혜택(보조금)은 8월 한 달 75억 원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거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소비자 중 최대 전기다소비 개인 B씨는 외국인으로 확인되었다. B씨는 '22년 1월 한 달간 29,812키로와트시의 전기를 사용해 2,068만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천연가스 도입 가격의 상승은 발전용 가스요금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고스란히 SMP에 반영되었다. 한전은 급상승한 SMP 가격으로 전력을 사왔으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는 이 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기이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요금은 시장에 가격신호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전력시장의

왜곡으로 가격신호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한 도매요금과 원가를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책정했다라면 위의 전기다소비 고객은 약 3조 8,068억 원의 전기요금을 더 납부했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전기 사용량을 줄였을 것이고, 요금이 정상적으로 가격신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여 전기요금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논리를 중시한다고 늘 강조하면서도 정작 전력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SMP 상한제로 전기가 거래되는 중간 단계에서 캡을 씌워 시장 왜곡을 가중시켰고, 대안 없이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며 땀질식 정책 행보만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초유의 한전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인 왜곡된 전력시장 구조를 바로잡아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전기요금은 복지정책과 달리 소득역진성이 강하다.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공급은 전기 다소비 대기업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한전의 적자는 결국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처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보면서 전기를 판매할 것이 아니라 원가기반의 전기요금을 받고, 에너지 기본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지원을 해주는 등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끝>

■ 산업용 21년 전력사용 상위 20개 고객의 '22년 1월, 7~9월 전력 사용량과 요금

(단위 :MWh, 백만원)

구분	1월		...		7월		8월		9월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1	558,172	58,170			617,230	72,946	617,404	73,361	574,340	54,714
2	578,486	59,384			730,133	85,877	744,027	87,892	700,217	65,707
3	465,913	47,964			542,667	63,934	523,072	61,711	531,922	49,876
4	378,750	39,364			406,258	47,865	400,170	47,343	352,423	33,466
5	320,032	33,249			324,064	38,413	330,239	39,232	314,744	29,661
6	281,865	28,953			273,823	32,059	271,690	32,117	253,994	23,951
7	316,399	32,321			293,499	33,959	266,578	31,181	234,779	23,156
8	217,590	22,827			239,993	28,466	237,607	28,339	219,123	20,863
9	244,461	19,095			170,304	14,731	194,382	17,458	243,993	19,570
10	285,252	25,847			212,806	23,150	177,923	18,099	61,783	7,538
11	191,934	20,333			176,131	21,470	177,957	21,760	165,872	15,976
12	180,997	18,852			165,437	19,293	154,468	18,331	158,237	15,868
13	191,957	19,810			188,387	22,289	187,068	22,263	179,542	16,976
14	183,242	18,757			191,520	22,477	191,395	22,573	180,114	16,917
15	159,493	16,398			149,601	17,717	152,014	18,059	131,314	12,447
16	154,208	16,162			166,502	19,681	159,171	18,994	152,968	14,486
17	146,910	15,253			164,388	19,324	166,236	19,659	155,938	14,663
18	139,060	14,604			150,732	17,906	151,223	17,998	140,824	13,367
19	148,169	14,534			130,198	14,482	131,253	14,573	142,541	12,870
20	148,363	18,904			151,111	17,818	148,964	17,621	147,110	13,769
합계	5,291,253	540,781			5,444,784	633,857	5,382,841	628,564	5,041,778	475,841

\*표에서 같은 색의 셀은 동일한 전기소비자

■ 일반용(고압) 21년 전력사용 상위 20개 고객의 '22년 1월, 7~9월 전력 사용량과 요금

(단위 :MWh, 백만원)

구분	1월		...	7월		8월		9월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사용량	요금
1	58,565	6,527		71,282	9,017	70,686	8,976	61,621	6,204
2	40,871	4,374		48,354	5,940	47,775	5,904	41,672	4,057
3	32,370	3,290		41,470	4,827	41,962	4,947	40,381	3,739
4	26,751	3,117		32,886	4,314	33,655	4,406	26,197	2,764
5	26,629	2,832		30,054	3,611	29,849	3,606	27,817	2,665
6	21,381	2,347		23,533	2,562	25,441	2,742	22,656	2,503
7	16,865	1,798		17,710	2,130	17,870	2,159	17,189	1,660
8	15,983	1,700		17,702	2,132	17,548	2,128	16,666	1,620
9	13,758	1,482		15,403	1,853	15,467	1,870	14,702	1,424
10	15,731	1,676		18,388	2,203	18,731	2,253	18,111	1,738
11	11,504	1,236		12,121	1,448	12,401	1,451	11,576	1,107
12	11,340	1,199		14,187	1,715	13,862	1,686	12,435	1,204
13	11,642	1,237		16,320	1,947	16,623	1,988	16,141	1,534
14	10,381	1,124		11,093	1,198	12,078	1,291	10,829	1,183
15	9,572	1,036		11,069	1,336	11,011	1,335	10,337	1,008
16	8,506	960		12,398	1,526	12,608	1,555	10,915	1,080
17	8,653	984		11,212	1,408	10,934	1,379	9,308	952
18	8,164	862		9,164	1,101	10,114	1,213	9,975	954
19	9,103	1,073		7,429	1,065	9,148	1,262	8,257	1,087
20	7,348	785		7,763	939	7,682	934	7,325	826
합계	365,117	39,639		429,538	52,272	435,445	53,085	394,110	39,309

\*표에서 같은 색의 셀은 동일한 전기소비자